

[종합·해설]

광주·전남서 본 연말정국 3대 관전 포인트

차기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문제 거론과 탈당 시사 발언으로 연말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의 탈당과 열린우리당의 분열 등 여권발 정계개편이 가시화된 것으로 보고 다가올 정국의 격랑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보는 연말 정국의 3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다.

① 여권 분열 대통령 탈당때 친노-신당과 결별

여당은 노 대통령의 탈당을 불가피한 수순으로 규정하면서 청와대와 결별을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는 임기 말 안정적 국정운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거국 중립내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노 대통령이 정국회 폐회 직후나 올해 말께 탈당을 선언하고 신년 설제로 전격적으로 중립

내각 구성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의 탈당은 정계개편의 시작을 알리는 한편 열린우리당은 통합신당과 친노 그룹의 갈등으로 결국 분당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합신당과는 급진 성향의 의원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노 대통령의 탈당이 이뤄지면 친노 그룹이 당을 뛰쳐나와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설도 나돌고 있으며 분당 시기는 내년 2월 설이 유력하다. 노 대통령의 탈당은 한나라당 입장에서 고민거리다. 고공 행진중인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노 대통령 실정에 따른 '반사 이익'이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탈당은 대선구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고건 신당 원탁회의 거물급 참여 여부 관건

고건 전 총리는 대선 주자를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10%대 중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고건 전 총리로서는 연말 정국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일단 고건 총리는 12월 중 구성키로 한 '국민통합신당 원탁회의'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전·현직 의원과 비정치권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기구인 원탁회의에 얼마나 많은 거물급 인사가 참여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원탁회의가 성공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고건 총리는 연말 정국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은 물론 정계개편의 주도권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고건 전 총리 측은 통합신당이 가시화되는 시기를 오는 3월경으로 예측하고 있다. 원탁회의를 통해 가능성이 확인되면 내년 초 열린우리당 통합신당과 민주당이 제3지대에서 모이게 될 것이며 오는 3월경 고건 총리가 구상하고 있는 통합신당의 모습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③ 민주 진로 정계개편 주력...한대표 거취 주목

여권의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당분간 몸값 띄우기에 나서며 정계개편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전력을 다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정계개편을 논의하는 기구를 구성하는 등 나름대로 민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 12사의 미니 야당이지만 호남 민심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말 정국에 잘 대응한다면 글자 그대로 '민주당 중심의 정계개편'도 가능하다

는 것이다. 그러나 고건 전 총리의 원탁회의가 모습을 갖추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제3지대에 모임 경우 민주당의 입지는 급속히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한 제3지대에서의 민주세력 대통합이라는 명분을 외면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는데다 미니 야당이라는 현실은 정계개편의 주체보다는 종속 변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화갑 대표의 거취 문제도 관건이다. 내년 2월 이전에 한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이뤄지고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민주당은 향후 진로와 관련한 심각한 내부 갈등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대표가 힘을 잃을 경우 민주당의 제3지대 이동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 소장파, 지도부에 반기

수요모임 '김용갑 징계 유보' 비판

한나라당내 소장·개혁파 의원모임인 '새정치 수요모임(수요모임)'이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들었다. 강재섭 대표가 윤리위에 김용갑 의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윤리위가 징계 유보 결정을 내린 것과 조직강화 특위 위원으로 거론됐던 수요모임 소속 정병국 의원이 탈락한 것을 문제 삼았다.

수요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리위가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할 지도부가 침묵하고 당 대표는 선처를 호소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또 "당의 요청으로 조강특위 운영원칙을 작성해 제출했던 정 의원이 최고위원의 해명

도 없는 상황에서 전격 교체됐다"며 "정 의원이 올바른 원칙을 당에 제시했는데 그게 지도부를 불편하게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나뉘며가 체제, 사당화로 가는 게 아닌 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내용을 당 대표에게 직접 전달하고 의원총회가 열리면 모임 차원의 집약된 의견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최근 강재섭 대표를 만나 도덕성을 철저히 따지고 그간 문제가 됐거나 대선주자에 걸선 인물을 철저히 배제할 뿐 아니라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인물을 선정해야 한다고 조강특위 운영원칙을 제시했다"며 위원직 탈락에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비정규직 3법' 처리 진통 국회 법사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동당의 회의장 기습점거로 진통을 겪었다. 이날 열린 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민노당 당직자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동부권 활성화 서둘러야"

학생 결핵환자 급증 대책 추궁도

도의회 도정질의

전남도의회는 30일과 다음달 1일 제22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행정처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이번 도정 질문에서 전남도의회들은 전남 동부권 활성화와 전남무역 경영혁신 방안, J프로젝트 활성화 대책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박홍수 의원(민주·순천1)은 29일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개발과 서남해안 개발사업, 공동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무안공항 활성화, 섬관광 개발 등 대형 개발 계획이 전남 서부권에 치우쳐 동부권 주민들은 소외

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반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전남테크노파크는 당초 2만평에서 1만평으로 축소됐고 울촌산단은 전남도 직접 개발 원칙을 세웠지만 부지가 완전히 조성되지 않은데 분양가 또한 대불산단에 비해 비싸게 책정돼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며 동부권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입지 여건이 좋은 모로코 탕헤르시와 폴란드 부로츠와프와 결합하고 있고 정계개편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유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남도의 올인(다걸기)

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동부권 활성화 대책으로 ▲동부권 민원출장소의 제2청사 승격 ▲여권업무 대행기관 지정 ▲순천시 관내 4개 도 산하기관의 통합 운영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전남도내에 등록된 학생 결핵환자가 2004년 17명, 2005년 14명, 올 9월말까지는 49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전남도교육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며 학교 공중보건체계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번 도정질의에는 30일 이종환·박홍수·이기범·강우석·나병기·이민우 의원 등 6명, 1일에는 이홍제·이부남·남기호·고승하·윤시석 의원 등 5명이 각각 나선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한 '반값 아파트 법안' 당론 채택

1가구 2주택 양도세 증가 폐지 백지화

한나라당은 29일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서민용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최고종신연석회의의 논의결과 반값 아파트 공급에 관한 대지임대부 분양 주택법안과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값 아파트 법안은 홍 의원이 지

난 4월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입법추진 과정에서 찬반 양론과 함께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은 집값 상승의 주원인이 비싼 땅값 때문이라고 보고 땅은 영구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지금의 절반 수준인 평당 500

만~600만원대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는 기존의 완전분양, 완전임대 아파트를 혼용한 제3의 개념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론 채택을 추진했던 부동산 감세안 중 종합부동산세 인별 합산 전환과 1가구 2주택 양도세 증가세 폐지 조항을 백지화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찬반 양론이 많아 결정을 유보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9급 공무원 국가직 서울시 광주시 전남도 채용시험대비

강재섭 대표가 윤리위에 김용갑 의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윤리위가 징계 유보 결정을 내린 것과 조직강화 특위 위원으로 거론됐던 수요모임 소속 정병국 의원이 탈락한 것을 문제 삼았다.

수요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리위가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할 지도부가 침묵하고 당 대표는 선처를 호소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또 "당의 요청으로 조강특위 운영원칙을 작성해 제출했던 정 의원이 최고위원의 해명

www.chongshin.com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한국수석합격자 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이서울시교육청과 직면 우수생애 0-2년 100% 합격률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자차학강

12월 1일 100% 합격률 100% 합격률

엄격률 100% 새총 행정고시학원 ☎361-8111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공제도 혜택까지 받을 난방이 핵심입니다.

www.meyang.com

TEL 10621282-0101

지영업자 전문대출 **자동차 전문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 당일 상환 가능(해신분) · 해당-유형-서비스업 운영자

· 모든차량 가능 (제당-할부-가입차) · 수납차-고급차 전문 · 24시간 상담 및 비밀 준수

· 어떠한-필라-상가 내내지는-발-앞에-출입 · 만행-공고-내출-후 2-3년 추가 대출

주)신세계투자금융 내부입용특별제 서구 132로 ☎10621431-3130